



12월 들어서도 비육돈 지육 kg당 3,000원대의 사상 최고치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출하돈 공급이 예상 이상으로 심각하게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최근의 전국적인 사료생산량 동향을 볼 때 이러한 출하돈 부족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당초 올 봄 이후에나 돈가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달리 1월에도 돈가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요인으로서 올 봄 출하물량을 예측해 주는 첫막이사료 생산량이 지난 10월 들어서부터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일본 수출수요도 올 봄까지

올 봄 이후에도 출하돈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평균 10만톤 대에 이르던 모돈사료 생산량이 지난 여름 이후 8만톤대로 떨어지고 있어 IMF로 인한 국내 양돈 생산기반 감소가 예상보다 크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모돈사육두수는 85만여두에 이를 것이라는 사육두수 통계발표와는 달리 75만여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국내돈육의 공급부족 현상은 연중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급부족량을 메꾸어 줄 돈육 수입량이 얼마나 될지



강세원 이사
(퓨리나코리아)

지육 kg당, 2,700~2,900원대 가격형성 예상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산지에서는 이미 출하 예정돈이 부족하여 규격에 못미치는 비육돈이 출하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침체에 산지 돈가 상승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가공업체들의 작업수요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수출업체들의 채산성 또한 악화되고 있어 출하돈에 대한 수요도 12월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99년 1월중에는 12월 돈가 추세보다는 다소 떨어진 비육돈 지육 kg당 2,700~2,900원대의 가격 형성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나 사육농가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돈가 호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가 돈가 향배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가입장에서는 새해가 시작되고 모처럼 돈가 호기도 지속되고 있는 1월을 맞아 그동안 소홀히해 두었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돈가 전망이 불확실한 시기인 만큼 단기적인 돈가 전망보다는 장기적인 돈가 전망치 위에 올 한해 적정수익을 낼 수 있는 생산비 목표를 세워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과 농장 운영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라 할 수 있다. **양돈**



최동수 팀장
(제일제당 육가공업팀)

12월 부터 도매시장 돼지 평균 가격 산정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12월 한달간은 육가공 업체와 양돈 농가간의 생돈 구매요율 적용 문제로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지금부터는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한 11월, 12월 돈가가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어 농가들의 불안이 다소 감소했으나 99년 연간 돈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어느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대부분 육가공 업체들이 99년 돈가를 2,625원~2,735원/kg(모돈, 규격돈 합산 평균 돈가 기

이라는 전망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저돈가(생돈 100kg 기준 45,000원 수준)로 인해 일본 및 한국에 수출 물량을 대폭 증가시킬 경우에는 돈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월 돈가는 2,850원~2,950원/kg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출하 예정 두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소비측면에서도 대일돈육 수출이 12월 보다는 호전될 것이라는 점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육 소비가 정착되면서 일정두수는 매일 가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12월과 큰 유의차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육가공 업

1월돈가는 2,850원~2,950원/kg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준 2,400원~2,500원/kg)으로 전망했으나 11월, 12월 돈가가 예상보다 높아 다소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99년간 돈가는 98년에 비해 다소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즉 돼지 평균가격 산정 방법 변경으로 인한 효과가 과거에 비해 100원/kg 정도 상승한 것, 생육 소비가 증가하면서 생육과 동결육 가격차 확대로 채산성 확보를 위해 육가공업체가 생육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정두수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고 과거 3년전에 비해 육가공 업체들의 가공처리 CAPA가 약 30% 정도 늘어났다는 점에서 볼 때 현 사육두수 수준에서는 돈가가 상승할 것

체들의 손익이 악화되어 처리두수를 일시적 대폭 감소시킬 경우에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



우려한 11월, 12월 돈가가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어 농가들의
불안이 다소 감소했으나 99년 연간 돈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어느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유통시장이 여전히 혼돈스럽게 이어져 오고 있다. 산지가격의 강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상황은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산, 수입육 유통업체 등과 육가공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산 판매가격에 대한 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가공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비육돈 평균가격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할 경우 브랜드육의 육통가격은 kg당 8천5백원~9천원 선이 돼야 한다. 그러나 이 가격으로의 공급은 무리라는 것이다. 특히 판매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

이와 함께 수입육시장에서는 지난달 약 5천여톤에 달하는 수입 돼지고기가 kg당 4천원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시중에 풀리고 있어 이 물량이 가격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물량은 이달 또는 늦어도 2월이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 5만여톤의 돼지고기 수입량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시장상황은 좋지 않지만 기본적인 수입량의 소화와 함께 국내산 가격이 현재 상태로 지속될 경우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있



권영철 국장
(미트저널 편집국)

시장가격 제대로 형성 안돼

태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상, 공급하는 것은 무덤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수입육 시장도 형편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kg당 4천원대가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돌아오는 성수기나 가사야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육의 이같은 현상은 소비약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육가공업체들은 최근 전세계 양돈 강국들인 미국, EU 국가들의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에 따라 수입육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 초부터 돼지고기 유통시장은 예상과 달리 국내산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가격측면에서도 절반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수입육의 시장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돼지고기 유통시장의 가격안정은 물론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자는 물론 육가공업체 및 수입육 유통업체들의 공통된 인식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산자가격이 좋다고 생산자가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돈**